

문화전당 개관 효과 광주 구도심에 '훈풍'

주말·휴일 관람객들 몰려
인근식당 매출 10~30% 늘어
시들했던 상권도 다시 활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개관으로 옛 전남도청 인근 광주 도심 상권이 들쭉날쭉하고 있다. 주말과 휴일 문화전당 관람객이 몰려들면서 식당이 매출이 늘어난 인근 식당가와 커피전문점 등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그동안 전남도청 이전으로 시들했던 도심 상권이 문화전당 개관으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또 외국인과 젊은층의 문화전당 나들이도 늘어 이들을 겨냥한 새로운 업종이 속속 들어서는 등 '문화전당 개관 효과'는 거리 풍경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15일 광주시 동구 문화전당로 일대 식당 등의 업주들에 따르면 지난 4일 문화전당 개관 이후 주말과 휴일 기준, 매출이 예전에 비해 10~30%가량 늘었다. 문화전당을 찾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인근 상가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사를 하면서 도심 상가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4곳의 관람객이 개관 첫날 1만4892명(중복 관람 인원 포함)을 기록한 데 이어 둘째 날인 5일에도 1만8448명에 달했다. 광주시가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에 금남공원~전일빌딩 구간 왕복 5차선(너비 40m 길이 518m) 도로의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하면서 주말에는 더욱 많은 관람객이 몰려들고 있다.

문화전당 개관 이후 달라진 도심 풍경의 특징은 유모차를 밀거나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온 가족 나들이객이 많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들의 도심 방문도 부쩍 늘었다.

문화전당로의 M음식점의 경우 문화전당 개관 이후 매출이 20%가량 증가했고, 개관 전 평일 10여팀이었던 가족 손님도 15팀 이상으로 늘었다. 이 식당에는 최근 휴일이면 30여 팀의 가족이 찾고 있다. 인근의 'G초밥'도 개관 전보다 20%가량 늘어난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문화전당로 인근 상가의 업종에도 변화가 생겼다. 가족 관람객을 겨냥해 김밥 등을 파는 분식집이 잇따라 문을 열고, 20여개의 커피전문점이 자리 잡았다. 피자에 맥주를 마시는 이색 술집도 문을 열었다.

최근 업종을 바꾼 'A김밥' 관계자는 "문화전당에 잔디밭이 있어 김밥을 사는 가족이 많고,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전당에 행사가 있는 날이면 등장하는 푸드트럭도 새로운 도심 볼거리가 됐다.

문화전당의 개관 효과는 밤에도 이어지고 충장로 등지의 상권으로 퍼지고 있다. 문화전당 광장 등지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젊은이들이 몰려들면서 인근 편의점의 음료수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족 관람객을 유인하기 위해 충장로 1가의 일부 상점은 아이들 상품을 전면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가족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람객이 많아 지하철 이용도 늘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분석한 문화전당 개관 후 문화전당역 이용객은 16.5% 증가했고, 전체 역 이용객도 5.5% 늘었다.

반면, 아직 문화전당 인근 상가 임대료는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일부 인쇄업 체들이 사무실을 비워줘야 하는 압박은 일도 생겼다. 커피전문점 등 월세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원하는 건물주가 늘어난 탓이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불량계란 1500만개
9년간 전국 유통** ▶6면

**사람이 문화자산이다
건축가 김수근의 '공간'** ▶18면



담양세계대나무박물관 D-1 '뽕부쇼' 17일부터 45일간 대장정에 돌입하는 '2015 담양 세계대나무 박람회'의 사전 미디어 공개행사가 열린 15일 담양군 박람회장 내 '킬러 콘텐츠'인 '뽕부쇼'장에서 홀로그램 영상과 함께 화려한 뽕부쇼가 펼쳐지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곳곳에 노사갈등 ... 광주는 '노심초사'

금호타이어

역대 최장기간 파업
돌파구 못찾아 난항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아자동차 노조도 최근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하기로 해 지역 경제 전반에 암운이 감돌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 난항을 이유로 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오는 16일 전체 조합원 3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10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임시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11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기아차 사측과 노조는 지난 9일까지 8차 본교섭을 거치며 추석 전 타결을 꾀했지만 이렇다 할 합의를 내지 못하자 이번엔 노조가 쟁의를 결의한 것이다.

기아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4년 연속 파업을 벌이는 셈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5만9900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조와 성실교섭을

기아자동차

16일 파업 찬반투표
지역경제에 '초긴장'

통해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교섭 분위기가 좋은만큼 파업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면파업과 직장폐쇄로 대치 상태에 있는 금호타이어는 아직까지 파국 국면을 풀지 못하고 있다. 창사 이래 최장기 파업으로 노사 모두 누적된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국내외의 압박 전망까지 좋지 않아 금호타이어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출범 8개월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노조는 30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사측은 지난 6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양측은 지난 14일 어렵게 18차 본교섭 자리를 마련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지역인 대부분이 대기업 노조의 파업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며 "파업중인 노조는 대타협의 의지를 갖고 파업을 풀고, 파업을 예고하는 일도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내버스

파업투표 72% 찬성
시민의 발 또 멈추나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2년 연속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5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이틀간 조합원 1300여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 72.4%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사는 지난 11일 10시간에 걸쳐 최종 협상을 벌였으나 '운전자의 날' 하루를 유급휴가일로 추가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시급 인상과 유급휴가 1일 추가 등 통상 시급(時給) 기준 3.88% 인상 요구안을 최종 제시했으나 사측은 유급휴가일 지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3.67% 인상안을 최종 제시했다.

노조는 "지난해 사업자 측이 시급제로 전환하면서 호봉제일 때보다 22일 근무 기준 월 급여가 오히려 삭감돼 타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해도 실제 인상액은 더 적다"며 "광주시가 그동안 대전 수준으로

임금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도 월 14만6000원(4호봉) 적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대년 3.65%, 부산 3.8% 등 타 도시 인상을 수준과 낮은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추가 인상을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광주시, 사측과 협상을 시도한 뒤 만일 추가 교섭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날 오후 집행부 회의를 통해 파업 날짜와 전면 또는 출퇴근 부분 파업 등 여부를 결정해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노조가 파업투표를 가결함에 따라 노사 양측에 진지하고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일 기준 98개 노선, 991대 운영 중인 버스 수송률 71%(89개 노선 728대) 유지를 목표로 파업 미참여 운전원에게 운행을 독려하고 시와 운송조합 등 76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시간을 거슬러
눈부시게 빛나는 길
헤라 에이지 리버스 쿠션

시간을 거슬러는 빛을 가져와
피부에 닿을 때마다 빛이 되게 되고
속해선 어떤 피부를 되살려주는 에이지 리버스 쿠션.
노후성 빛과 젊음 그 모든 것을 갖고 더 눈부시게

HERA